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12년 봄 37호

반목과 곤충들
사랑들

Cover Story



〈장미와 나비〉, 심사정, 24.3×18cm, 서울대학교박물관 제공
큼직한 꽃송이 주위로 나비와 잠자리가 날아온다.
선으로 윤곽을 그리지 않고 음영과 농담으로 표현했다.
장미줄기의 가시까지 묘사해 섬세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Contents

기획 | 초충도

- 04 풀꽃과 풀벌레의 합창
- 10 나비

선비들의 문화사랑

- 14 매화

문화칼럼

- 17 살아 숨쉬는 인류문명의 옥외박물관-터키

회원마당

- 23 어떻게 쓰였을까, 고려청자매병
- 26 조금씩 박물관에 눈을 떠가다

학술상

- 28 後百濟 佛教美術의 特徵과 性格

- 33 상반기 국립박물관 전시계획

숨은전시 찾아보기

- 34 김종학 기증실

- 35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책을 만들면서..

초원에서 쏟아지는 별
태평양의 셀수없는 별
인도양은 느끼는 별
여기서도 보고 또 보고
사랑하고 싶은데...(水)

3월이라고
꽃인듯 나비인듯 눈물인듯
봄기운이 돈다. (河)

거울속에
내가 아닌 엄마가 서있다.
이십년전 그때 그 모습으로...(愛)

또 봄이구나.
벌써 몇번째야.
나는 언제나 그자리에 있는데.
세월은 참 빨리 돈다.(리)

우리집 수선화는
이제야 빼죽 고개를 내민다.
노란꽃을 보려면 인내심이 필요할 듯.
물론 기꺼이 기다리리라.(정)

마당 한 켠 잔디위에
누런 고양이가 널부러져 있네요.
마치 제 집인양
따뜻한 봄볕을 저 혼자만 만끽 하는지
알미워요. (藝)

떠나가는 사람도,
새로이 시작하는 사람도,
그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길.(延)



회지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 2012년 03월 15일
발행처 |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 김정태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정미희·정혜리·조애경·최예정·하영남
진행 | 서승연
디자인 | themageworks. (02)2268-5305
발행처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전화 | (02)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01

풀꽃과 풀벌레의 합창 화훼초충도

글 이원복 _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동식물의 夫唱婦隨 – 꽃이 피면 벌과 나비는 노래하고 춤추네

시린 겨울, 동장군을 보내면 봄처녀가 사뿐사뿐 미소를 띠고 다가온다. 천하에 봄꽃들이 화사한 얼굴을 내밀면 어디에선가 벌과 나비가 날아온다. 꽃은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로 이들 곤충을 불러 생명의 精髓인 씨를 만든다. 곤충들은 꽃잎을 망가트리지 않고 자신들의 식량을 얻고, 서로 도우며 생명을 이어간다. 이것은 조물주가 부여한 자연의 이치 아닌가. 우리 인간만이 개발이나 발전이란 미명으로 대자연을 무차별하게 파괴하고 훼손하는 마치 암같은 존재가 아닌가를 되묻게 된다. 애벌레 상태에선 혐오감마저 주는 누에와 배추벌레,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보호색을 지닌 것부터 아름다운 색채와 무늬로 뽐내듯 꽃 사이를 오락거리는 각종 나비, 웅웅거리며 달콤한 꿀을 만드는 벌, 도심 아파트 주변에서도 폭염에 항거하듯 세차게 울어대는 매미, 울음소리가 숲에서 실내로 그리고 침대 주변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가을의 깊이를 알리는 귀뚜라미, 공중에 망을 설치해 먹이를 포획하는 거미 등 생물체 가운데 종류와 수량이 가장 많은 것이 곤충이다.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으며 때로는 계절의 전령사이기도 한 이들은 문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무수한 詩文을 탄생시킨다. 또한 화가의 손을 거쳐 화폭에서 다시 태어나니 이를 초충도라 부른다. 넓은 의미로는 화조도에 포함되며 새와 달리 곤충은 주로 여린 풀꽃에 등장하기에 화훼초충도라 지칭하기도 한다. 곤충 외에 개구리나 도마뱀, 들쥐와 고양이 등 양서류와 파충류 및 포유류가 포함되기도 한다.

중국 청대 나비 그림에 능해 姓에 나비를 붙인 22명의 화가들의 존재로 미루어 나비가 독립된 소재로 발전함은 국제적인 양상이다. 우리나라에도 19세기 ‘남 나비’란 별명을 얻은 문인화가 남계우가 있다. 그는 세밀한 관찰을 통해 섬세한 필치로 화려한 채색을 사용해 각종 나비를 즐겨 그렸다. 〈패랭이꽃과 호랑나비(石竹群蝶)〉 등 이 분야의 일인자답게 크고 작은 다수의 명품이 전한다.

문인화가, 모든 그림에서 先驅 – 초충도의 긴 역사와 위상

한자문화권인 동양의 옛 그림 장르 중에서 초충도는 때로 雜畫 범주로 분류되는 등 그 위상은 산수화나 인물화, 사군자에 미치지 못한다. 일견 하찮은 소재의 장식적인 그림으로 여겨 사대부 등 지식층 문인화가보다는 섬세하며 아름답게 그리는 직업화가들의 몫이었다. 또한 繡本과 유사한 화면구성으로 인해 여성의 전유물로 잘못 이해될 소지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이 분야를 즐겨 그려 이름을 남긴 제왕을 비롯해 적지 않은 고관 지식층 화가들이 산수화나 사군자에 앞서 이른 시기부터 초충도를 그렸다.

우리나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초충도의 대명사가 된 신사임당의 8폭 화첩이나 소형 병풍, 어질고 너그러운 성격과 품위가 깃든 정조의 〈국화〉, 조촐하며 담박한 선비 그림의 특징을 담은 강세황의 〈패랭이꽃과 방아깨비〉, ‘조선의 畫聖’ 정선의 『화훼영모도첩』 등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문인화가들이 먼저 시작했으며 오랜 세월 즐기차게 그려진 점에서도 주목된다. 대자연의 웅혼한 풍경을 담은 거시적인 산수화가 주는 감동과는 구별된다. 소품이 주류이며, 미시적이어서 사뭇 조촐하나 나름의 시적 분위기를 드러낸 짙은 서정성과 기량을 읽을 수 있는 격조 높은 그림들도 적지 않다.

초충 또한 사군자와 마찬가지로 선비들의 餘技나 破閑의 대상으로 접근하기 쉬운 소재이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초 巨匠 안견 외에 강희안 등 15세기부터 문인화가들도 자주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선비의 소박하며 해맑은 마음을 드러낸 작고 깨끗한 〈白磁靑畫忘憂臺銘草蟲文첩시〉와 특히 한 편의 시구가 들리는 듯한 조선 후기 〈白磁靑畫梅鳥竹文有蓋壺〉도 예사롭지 않다. 백자 접시며 항아리 표면에 등장한 이들 소재는 회화성이 짙어 동시대 그려진 초충도 양상을 짐작하게 한다. 조선시대 초충도 가운데는 중국에서 간행된 각종 畫譜에 실린 그림을 옮겨 그린 예도 없지 않다. 그러나 조선후기엔 진경산수나 초상 및 풍속화에서 확인되는 팝진한 묘사기법이 이들 초충도에서도 읽을 수 있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눈에 친숙한 식물, 곤충들이기에 이를 실제로 자세히 살펴 화폭에 옮기는 寫生을 통해 어렵지 않게 그렸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02	03
04	

주변의 친숙한 소재 - 서정과 좋은 상징

꽃을 싫어하는 이들은 없겠으나 이를 대하는 감정 내지 감수성은 사람마다 다르다. 한 송이 꽃이 얼굴을 내밀면 주변은 눈부시게 빛난다. 또 하나의 별이나 우주가 탄생한 것에 비견될까? 꽃은 특히 일본인들이 각별히 좋아해 즐겨 그렸으며 차가 있는 공간에 꽃을 함께 해 꽃꽂이도 크게 성했다. 우리의 경우도 선비들이 꽃을 즐겨 가꾸고 곁에 두고 보며 시를 지었다. 특히 18세기는 造景과 園林 조성 등 정원 가꾸기의 유행 속에 궁중을 비롯해 각종 의식에 꽃이 사용되었으나 생화보다는 조화를 주로 이용했다.



05

초충도의 소재를 살펴보면 한·중·일 동양 삼국이 크게 다르지 않다. 원예식물로 재배되는 일년생과 다년생, 겨울이면 지상에 남는 것이 없는 草本들과 산야에 자라는 야생 풀꽃들도 포함된다. 자주 그린 식물로는 양귀비·봉숭아·파리·촉규(접시꽃, 부용화)·추규(닥풀, 황촉규)·수선화·옥잠화·연꽃·수국·붓꽃·맨드라미·여주 등과 채소인 수박·참외·오이·가지·홍당무·무 등을 들 수 있다. 야생화로는 뱀딸기·쇠뜨기·바랭이·강아지풀·여뀌·민들레·패랭이·달개비·원추리·감국(들국화, 소국, 구절초) 등이 있다.

각종 나비와 벌·나방·매미·잠자리·메뚜기·방아깨비·베짚이·여치·사마귀·쇠똥구리·하늘소·거미·달팽이·무당벌레·개미 등 여러 종류의 곤충들과, 개구리와 두꺼비 같은 양서류, 도마뱀 같은 파충류, 들쥐 같은 작은 포유류 등을 함께 그리기도 한다. 간혹 곤충들과 더불어 고양이나 다람쥐 및 새도 함께 그려 넣어 넓게는 화조화의 범주에 넣기도 하는데, 나무에서 피는 화려한 꽃보다는 일년생 풀꽃이 주류이며 조류보다는 곤충류가 주된 소재이다.

사군자가 선비의 지조를 대변하듯, 초충 소재는 각기 나름의 의미와 상징을 지닌다. 패랭이꽃의 한자 표기가 石竹이니 이는 장수를, 맨드라미꽃은 닭 벼슬을 닮았으니 맨드라미 아래 닭은 연이은 승진을, 쥐는 다산을 의미한다. 매미는 머리에 갓끈 무늬가 있어 文, 이슬을 먹고 마시니 맑고, 곡식을 먹지 않으니 청렴하며, 집을 짓지 않으니 검소하고, 수절하니 믿음을 상징하므로 이들 다섯 덕의 소유자로 상찬된다. 고양이와 나비 그림은 <耄耋圖>라 부른다. 고양이를 猫와 70세 노인을 칭하는 耄, 나비의 蝶과 80세 노인을 칭하는 耋의 중국어 발음이 비슷해 차용한 용어로 70~80세까지 장수를 기원한다.

신사임당과 정선의 초충도 - 조선 전후의 양 대가

초충도하면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신사임당이다. 그러나 그녀가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를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며, 초충도만을 그린 것도 아니다. 조선의 초충도는 그녀에 앞선 긴 흐름과 나아가 국제적 양상까지 아우름을 보여준다. 간송미술관 소장 『8폭 화첩』, <수박과 들쥐>가 속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8폭 병풍』, 강릉 오죽헌에 기증된 2점에 북한 조선미술박물관과 개인 등 3개 처에 나뉘어 4점이 확인된 『초충도첩』



- 01 <패랭이꽃과 방아깨비>, 강세황, 종이에 수묵, 25.5×34.5cm, 개인소장
- 02 <수박과 들쥐>, 전 신사임당, 종이에 채색, 34.0×28.5cm, 국립중앙박물관
- 03 <국화> 부분, 정조, 종이에 수묵, 84.6×51.3cm, 동국대학교박물관
- 04 <패랭이꽃과 호랑나비>, 남계우, 종이에 채색, 19.5×24.0cm, 간송미술관
- 05 <백자청화망우대명초중문접시>, 15-16세기, 지름 16.0cm, 리움
- 06 <여뀌 아래 개구리>, 정선, 비단에 채색, 29.4×22.2cm,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돋보인다. 그러나 화풍에서 작품마다 차이가 커서 과연 이들 모두가 동일인인 솜씨인지 의심된다. 이에 ‘신사임당풍’ 또는 ‘신사임당 양식’으로 부름이 옳을 것이다. 수분 같은 느낌을 피하긴 어려우나, 한편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감지되어 신사임당은 조선 초 초충도의 한 定型을 이룩한 점은 중시된다. 그녀의 화풍을 따른 일련의 그림들도 적지 않게 그려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소 도식적이며 장식적인 구성과 구도 위에 채색을 사용한 것이 주류를 이루나 먹만을 사용해 그린 예도 없지 않다.

정선은 우리 산천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화풍을 정립한 진경산수 때문에 영모나 초충 그리고 인물은 우리들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산수보다 작품 수가 많지는 않으나 인물을 비롯해 초충도에서도 산수에 버금가는 높은 격조를 이룩했음이 확인된다. <여뀌 아래 개구리(蓼花蝦蟆)>나, <가을날 한가로운 고양이(秋日閑猫)>가 포함된 『화훼영모도첩』이 보여주듯 초충에서도 조선 후기 문인화가 중 가장 독자적이고 선구적이다. 그의 영향은 심사정이나 김희겸·강세황·변상벽 등 문인화가 및 화원에 이르기까지 후대에 확연히 드러난다. 한자문화권에서 지식층 문인들이 영모와 초충을 墨戲의 대상으로 선호했으며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이 장르에서도 중국의 과장이나 일본의 장식성과 구별되는 우리 민족의 어질고 착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 美感과, 그 미적 정서가 익살 및 삶의 낙천성과 어우러져 독자적 화풍을 이루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



〈초충도〉, 김희겸, 25.1×18.8cm, 국립중앙박물관



나 비

글 정혜리 _ 편집회원

자연의 순환은 은밀하고도 빠르게 진행된다. 대지 속에서 새 생명이 꿈틀거릴 때, 세상은 저마다의 소리로 소란스럽다. 짙한 햇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면 하늘에서 나비가 내려온다. 그리고 제 색깔을 뽐내는 꽃 사이를 유유히 날아다닌다. 천상의 커플인 꽃과 나비는 草蟲圖에서 단연 돋보인다. 화려한 빛깔과 너울거리는 날개의 나부김이 황홀하다. 초충도를 보며 봄꿈의 몽롱함에 흠뻑 취해본다.

나비야 청산가자 호랑나비야 너도 함께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가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 하거든 앞에서라도 자고 가자꾸나

「청구영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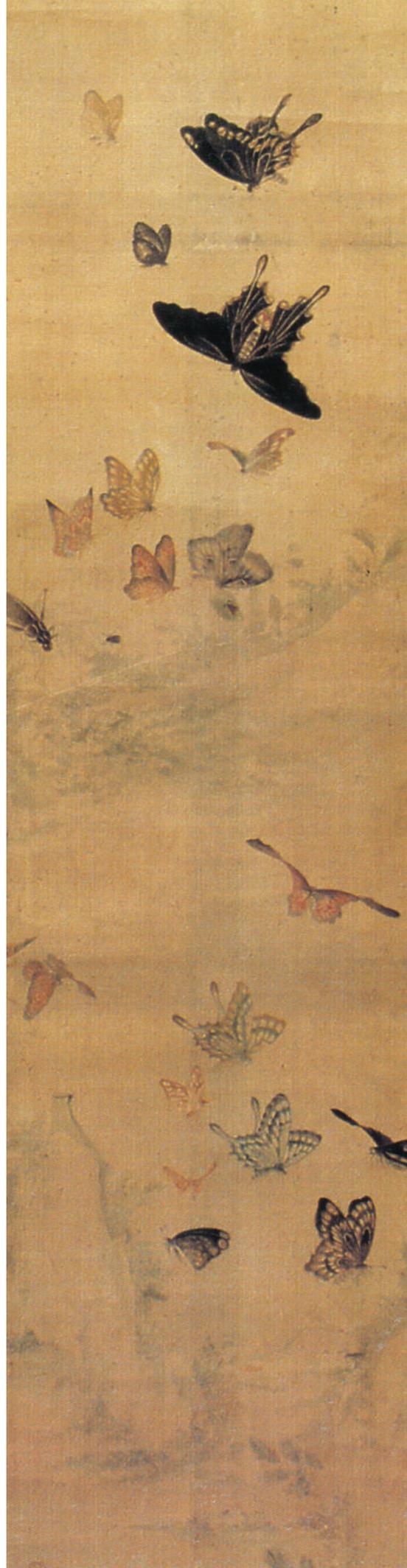
—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등나무 꽃 속을 나비가 팔랑거린다. 부끄러운 듯 아래로 꽃망울을 터뜨리는 등꽃은 수줍은 처녀의 얼굴 같다. 오랜 옛날부터 가슴아픈 등꽃 설화가 전해진다. 신라시대에 두자

매가 한 화랑을 사랑했는데 화랑은 전쟁에 나가 전사하고 슬픔을 못 이긴 자매는 우물에 빠져 죽는다. 그 슬픈 영혼을 위로하듯 우물 옆으로 서로 의지하며 올라가는 등나무가 자라났다. 南啓宇의 <등꽃과 나비>는 못다 이룬 사랑을 찾아 배회하는 화랑과 자매일지도 모른다. 등꽃을 쫓아가는 호랑나비의 날개가 선명하다. 지금이라도 그림 속에서 튀어나와 훨훨 날아갈 것 같다. 그에 비하면 그림 하단의 암끝검은 표범나비는 그저 무심히 꽃을 찾아간다.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황금빛 날개의 표범무늬를 활짝 펼치고 있다. 먹그림나비도 등나무의 보호 아래 짝짓기를 하며 사랑을 속삭인다. 꽃은 여자, 나비는 남자로 비유해 그리운 여자를 쫓아가는 남자의 모습으로 자유연애를 상징하기도 한다.

나비라고 다 꽃과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다. 沈師正의 <괴석초충도>의 나비는 상당히 터프하다. 울퉁불퉁해서 살짝 스쳐도 상처가 날 것 같은 바위를 향해 더듬이를 들이대고 사정없이 돌진한다. 전투를 치르고 꽃을 차지할 것 같은 기세다. 작은 그림에서 뿜어 나오는 에너지가 강렬하다. 바위 위에 핀 패랭이꽃이 비바람에 시달린 듯 힘들어 보인다. 진경시대의 화가들은 전국을 누비며 산수를 그렸다. 불우한 처지였던 심사정은 중국의 화보를 모사하거나 뜰에 핀 꽃과 곤충들을 그리며 마음을 달랬다. 정밀한 묘사보다는 화면을 과감히 생략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입했다. 寫生보다는 寫意를 더 중요시 한 것이다. 꽃은 험한 바위 속에서 피었고 나비는 바위나 꽃과의 비례에 맞지 않게 크다. 나비란 아름다운 곤충이라는 관념을 깨고 자연 속의 무법자로 등장 시킨다. 심사정 자신은 지친 패랭이꽃일까, 무법자 나비일까.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 발인가 해서 내려 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바다와 나비」, 김기림





03

— 李教翼의 나비는 외롭다. 갈 곳을 못 찾고 떠도는 날개짓이 애처롭다. 목적지를 잃고 浮遊하고 있다. 바다인지 뿌연 하늘인지 구분 안 간다. 어디로 가야 꽃에게 갈 수 있을까. 어느 쪽에서 숲의 향기가 불어올까. 길을 잃은 나비들은 밤이 되면 불빛을 향해 무조건 뛰어어드는 불나비가 되어 자기 몸을 태워버릴지도 모른다. 심사정과 이교익은 나비를 꿈과 사랑의 대상으로만 보지는 않았다. 끝없이 꽃을 찾아 헤매는 방랑자이자 저돌적인 자연의 지배자로 그렸다.

— 조연이지만 그 존재감이 큰 나비도 있다. 金弘道の <黃猫弄蝶>과 李巖의 <花鳥拘子>는 보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절로 생긴다. 한가로운 초여름 오후의 나른함에 눈이 감긴다. 한껏 즐기고 있던 노란 고양이는 긴꼬리제비나비가 날아들자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다. 이 녀석을 어떻게 골려줄까. 고양이의 의중은 벌써 간파 당했다. 오히려 나비가 놀리듯 달려든다. 초록이 물든 들판은 평화롭고 활짝 핀 패랭이꽃이 둘의 장난을 지켜본다. 심사정의 패랭이꽃이 세월에 지친 노인이라면 김홍도의 꽃은 혈기 왕성한 양반집 자제이다. 몸이 저절로 흔들리며 시가 나올 것만 같다. 검둥이, 흰둥이, 누렁이가 모여 놀다 지쳐 잠이 든다. 다들 순둥이다. 나비가 날아오자 새들이 짹 대고 그 소리에 검둥이는 잠이 깨 두리번거린다. 잃은 무성하지만 나무는 노쇠하여 까치의 무게조차 힘들어 보인다. 정지되어 있던 화면에 작은 나비의 출현은 미묘한 흥분을 일으킨다. 꽃과 곤충, 동물이 함께한 그림은 우리 마음을 무장해제 시킨다. 어느 畫風인지, 어떤 의미인지 굳이 알 필요 없다. 그냥 보고 즐기며 가슴 가득 행복감만 느끼면 된다.



04



05

술을 마실 때도 꽃과 나비는 빠지지 않는다. <白磁靑畫鐵彩銅彩草蟲文瓶>은 국화와 난초, 벌과 나비가 서로 어우러져 있다. 진사·철사·청화가 함께 섞여 돌을무늬로 새겨져 있다. 나비가 날고 벌이 왕왕거리는 꽃밭 속에서 술을 마시는데 어찌 취하지 않겠는가.

어릴 때 담장 밑에 가지런히 피어 있는 맨드라미를 보며 꽃이 다 예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시뻘겋고 주글주글한데다 털까지 송송 나 있었다. 신사임당 <초충도>의 맨드라미는 그때의 기억보다 훨씬 예쁘다. 그러나 화면의 정 가운데를 차지하고 하늘을 향해 머리를 꼳꼳이 들고 있는 당당함은 그 꽃 그대로이다. 나비도 주눅이 들어 차렷 자세로 서 있다. 감히 쉬어갈 생각도 못하고 씩씩한 기세에 눌러 있다. 얼마 전 꽃집에서 맨드라미를 보았다. 모양은 같으나 색깔도 고와지고 억셈도 보이지 않는다. 나비에게 곁을 내주지 않던 도도함은 사라지고 그냥 꽃이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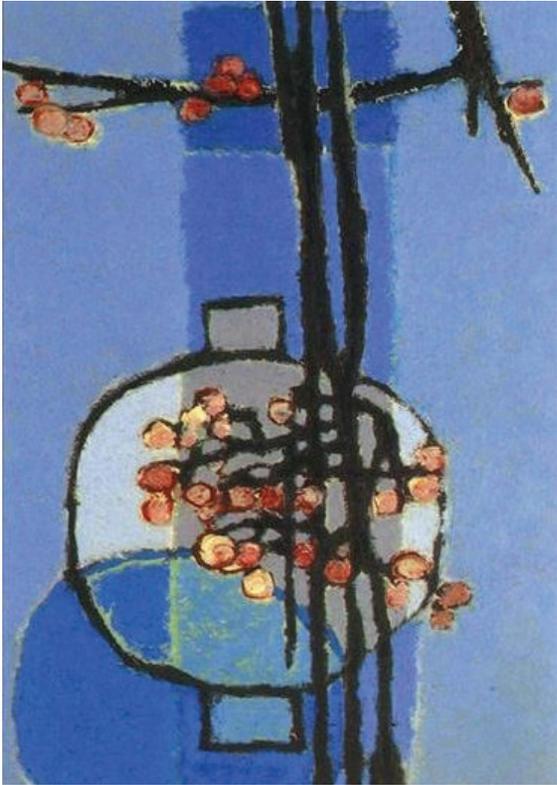
봄이 되어도 나비가 오지 않는다. 나비가 놀던 계절에 황사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촉촉한 대지에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나비가 팔랑거리던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그때 그곳이 청산이었나 보다. 🐛

- 01 <등꽃과 나비>, 남계우, 121.7×28.8cm, 국립중앙박물관
- 02 <호접도>, 이교익, 124.2×29.5cm, 고려대학교박물관
- 03 <괴석초충도>, 심사정, 16.3×14cm, 국립중앙박물관
- 04 <화조구자도>, 이암, 86.0×44.9cm, 리움
- 05 <황묘농접>, 김홍도, 30.1×46.1cm, 간송미술관
- 06 <맨드라미와 쇠똥구리>, 신사임당, 33.2×28.3cm, 국립중앙박물관
- 07 <백자청화철채동채초충문병>, 국보 제294호, 간송미술관



06

07



매 화

댁에 매화가 구름같이 피었더군요. 가난한 살림도 때로는 운치가 있는 것입디다. 그 수묵(水墨) 빛깔로 퇴색해 버린 장지 도배에 스며드는 묵흔(墨痕)처럼 어렵듯이 한 두 개씩 살이 나타나는 완자창 위로 어찌면 그렇게도 소담스런 희멸건 꽃송이들이 소복한 부인네처럼 그렇게도 고요하게 필 수가 있습니까.

— 실례의 말씀이오나 ‘하도 오래간만에 우리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청하신 선생의 말씀에 서슴지 않고 응한 것도 실은 선생을 대한다는 기쁨보다는 댁에 매화가 성개(盛開)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때문이요 십 리나 되는 비탈길을 얼음 빙판에 코방아를 짚어 가면서 그 초라한 선생의 서재(書齋)를 황혼 가까이 찾아갔다는 이유도 댁의 매화를 달과 함께 보려 함이 었습니다.

— 매화에 달 이야기가 났으니 말이지 흔히 세상에서들 매화를 말하려 함에 으레 암향(暗香)과 달과 황혼을 들더군요. 선생의 서재를 황혼에 달과 함께 찾았다는 나도 속물이거니와 너무나 유명한 임포(林浦)의 시(詩)가 때로는 매화를 좀더 신선하게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한 방해물이 되기도 하는 것 입디다. 화초를 상완(賞玩)하는 데도 만네리즘이 필요할 까닭이 있나요.

글 김용준

01 <매화와 향아리>, 김환기, 52×37cm, 1957

- 덕에 매화가 구름같이 자못 성관(盛觀)으로 피어 있는 그 앞에 토끼처럼 경이의 눈으로 쫓그리고 앉은 나에게 두보(杜甫)의 시구(詩句)나 혹은 화정(和靖)의 고사(故事)가 매화의 품위를 능히 좌우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하고많은 화초 중에 하필 매화만이 좋으란 법이 어디 있나요. 정이 든다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는가 봅니다. 계모 밑에 자란 자식은 배불리 먹어도 살이 찌는 법이 없고 남자가 심은 난초는 자라기는 하되 꽃다움이 없다는군요. 대개 정이 통하지 않은 소이(所以)라 합니다.

- 연래로 나는 하고많은 화초를 심었습니다. 봄에 진달래와 철쭉을 길렀고 여름에 월계와 목련과 핏빛처럼 곱게 피는 달리아며 가을엔 울밑에 국화도 심어 보았고 겨울이면 내 안두(案頭)에 물결 같은 난초와 색시 같은 수선이며 단아한 선비처럼 매화분을 놓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철따라 어느 꽃 어느 풀이 아름답고 곱지 않은 것이 있으리오마는 한 해 두 해 지나는 동안 내 머리에서 모든 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 기억에서 종시 사라지지 않는 꽃 매화만이 유령처럼 내 신변을 휩쓸고 떠날 줄은 모르는구료.

- 매화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나뇨? 세인이 말하기를 매화는 늙어야 한다 합니다. 그 늙은 등걸이 용의 몸뚱어리처럼 뒤틀려 올라간 곳에 성긴 가지가 군데군데 뻗고 그 위에 띄엄띄엄 몇 개씩 꽃이 피는 데 품위가 있다 합니다. 매화는 어느 꽃보다 유덕한 그 암향이 좋다 합니다. 백화(百花)가 없는 빙설리(氷雪裏)에서 홀로 소리쳐 피는 꽃이 매화밖에 어디 있느냐 합니다. 혹은 이러한 조건들이 매화를 아름답게 꾸미는 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매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실로 이러한 많은 조건이 멸시(蔑視)된 곳에 있습니다. 그를 대하매 아무런 조건 없이 내 마음이 황홀하여 지는 데야 어찌하리까.

- 매화는 그 등치를 꾸미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 자라고 싶은 대로 우뚝 뻗어서 제 피고 싶은 대로 피어 오르는 꽃들이 가다가 훌쩍 향기를 보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제가 방 한구석에 있는 체도 않고 은사(隱士)처럼 겸허하게 앉아 있는 품이 그럴 듯합니다. 나는 구름같이 핀 매화 앞에 단정히 앉아 행여나 풍겨 오는 암향을 다칠세라 호흡도 가다듬어 쉬면서 격동하는 심장을 가라앉히기에 힘을 씁니다. 그는 앉은 자리에서 나에게 곧 무슨 이야긴지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 매화를 대할 때의 이 경건해지는 마음이 위대한 예술을 감상할 때의 심경과 무엇이 다를 것입니다. 내 눈앞에 한 개의 대리석상이 떠오릅니다. 희랍에서도 유명한 피디어스의 작품인가 보아요. 다음에 운강(雲岡)과 용문(龍門)의 거대한 석불(石佛)들이 아름다운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서 내 눈앞에 황홀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수유(須臾)에 이 여러 환영(幻影)들은 사라지고 신라의 석불이 그 부드러운 곡선을 공중에 그리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눈물겨웁도록 아름다운 자세로 내 눈에 현황(眩慌)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나는 다시 희말건 이씨조(李氏朝)의 백사기(白砂器)를 봅니다. 희미한 보름달처럼 아름답게 조금도 그의 존재를 자랑함이 없이 의적이 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수줍어하는 품이 소리쳐 불러도 대답할 줄 모를 것 같구료. 고동(古銅)의 빛이 제아무리 곱다한 들 용천요(龍泉窯)의 품이 제아무리 높다한들 이렇게도 적당한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맥에 매화가 구름같이 핀 그 앞에서 나의 환상은 한없이 전개됩니다. 그러다가 다음 순간 나는 매화와 석불과 백사기의 존재를 모조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결처럼 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있는 듯 만 듯한 향기가 내 코를 스치는구료. 내 옆에 선생이 막 책장을 넘기시는 줄을 어찌 알았으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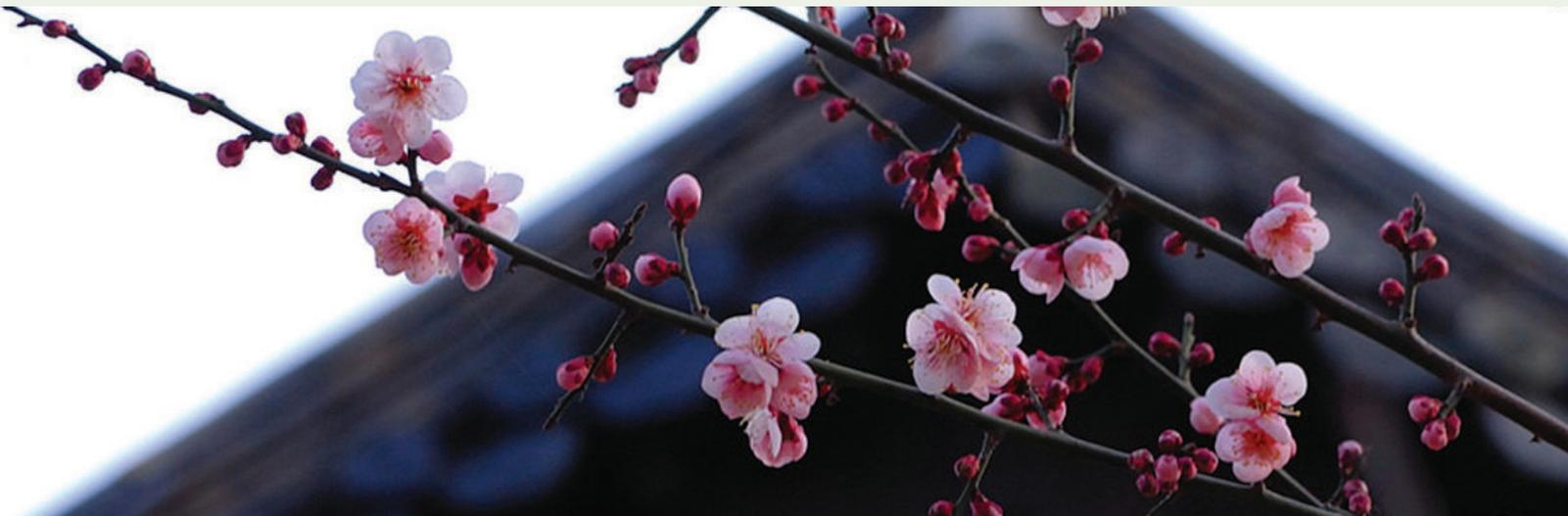
요즈음은 턱없이 분주한 세상이올시다. 기실 나 남할 것 없이 몸보다는 마음이 더 분주한 세상이올시다. 바로 일전(日前)이었던가요. 어느 친구와 대좌하였을 때 내가 “X선생 맥에 매화가 피었다니 구경이나 갈까?” 하였더니 내 말이 맺기도 전에 그는 “자네도 꽤 한가로운 사람일세” 하고 조소(嘲笑)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먼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어찌어찌하다가 우리는 이다지도 바빠졌는가. 물에 빠져 금시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 친구 인사나한 자였다면 건져 주었을 걸’ 하는 영국풍의 침착성은 못 가졌다 치더라도 이 커피는 맛이 좋으니 언짢으니 이 그림은 잘되었으니 못되었으니 하는 터수에 빙설을 누경(屢徑)하여 지루하게 피어난 애련한 매화를 완상(翫賞)할 여유조차 없는 이다지도 냉회(冷灰)같이 식어버린 우리네의 마음이리까? 🍒

〈정해(丁亥) 입춘 X선생 맥의 노매(老梅)를 보다〉

| 근원 김용준(1904~1967)

대구출생. 동경미술학교 졸업.

서울대 미술대학장을 지내고 6·25 후 서울수복 때 월북. 저서 『근원수필』, 『조선미술대요』 등





01

터키

살아 숨쉬는 인류문명의 옥외박물관

글 이희수 _ 한양대학교 교수

역사와 스토리로 가득찬 나라

일찍이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터키를 ‘인류문명의 살아 있는 거대한 옥외박물관’이라 했다. 그것은 정확한 지적이었다. 터키의 어느 지역을 가도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의 편린들을 설 새 없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프라테스·티그리스 강을 흘러보내 인류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탄생시킨 어머니의 땅이었고, 아나톨리아 반도의 차탈휘육에서 기원전 6500년경 세계최초의 도시문명을 일군 곳이다.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사스, 고대사를 뒤바꾼 트로이 유적지, 그리스-로마 최대의 도시 에페소스, 일리아드 오딧세이아의 저자인 호메로스의 고향, 성모 마리아가 여생을 보낸 유택, 기독교 초기 7대 교회, 니케아-에페소스-칼케돈 등 초기 기독교 공회의 장소들, 페르가몬에 있는 세계 최초의 병원인 아스클레피온,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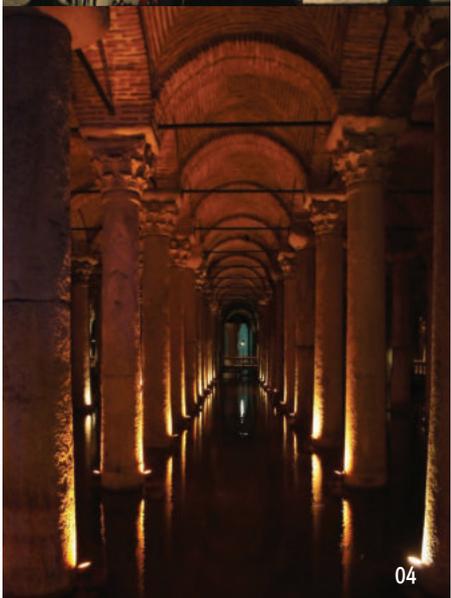
신전, 산타클로스로 잘 알려진 성 니콜라스 주교의 마을과 교회, 동화 '임금님과 당나귀 귀'의 배경이 되었던 프리기아 왕국, 황금 손을 가졌던 미다스 왕, 알렉산드로스 동방 원정의 길을 열어준 고르돈의 매듭,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 등을 만난다. 그 뿐이랴. 카파토키아의 지하 도시, 파묵칼레의 석회 온천, 노아의 방주가 남아 있는 아라라트 산. 그리스 정교와 비잔틴 문명이 온전히 살아있는 영성의 도시 이스탄불, 셀주크 튀르크의 수도였던 코냐, 인류역사상 세계최대의 제국을 세웠던 오스만 튀르크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터키 땅에서 밟고 있는 흙더미나 아무렇게나 흩어진 돌 조각 하나하나가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주는 인류의 대화 고리인 셈이다.

한국을 닮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

원래 터키족은 우리와 같은 알타이 문화권에 속했다. 그래서 터키 국사교과서 1장은 흉노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는 돌궐, 위구르, 셀주크 튀르크, 오스만 제국, 터키 공화국 순으로 역사가 이어진다. 흥미로운 사실이다.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장악하여 끊임없이 중국을 위협하면서 서방의 새로운 문화와 진귀한 교역품을 전해 주었던 흉노는 당시 중국의 세계화 선생이었다. 4세기경 서쪽으로 진출한 흉노는 훈이란 이름으로 다시 한번 유럽사에 그 이름을 떨치게 된다. 흉노의 역사를 이어받은 튀르크족은 돌궐족이었다. 그들은 중국과 대등한 역사를 이루었고, 하늘을 숭상하는 민족으로 고구려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돌궐의 역사는 다시 위구르가 이어받고 그들의 일파가 서쪽으로 진출해 11세기경 셀주크 제국을 일으키게 된다. 중앙아시아의 트랜스옥시아나에 자리 잡았던 셀주크 튀르크족들은 지중해까지 진출하여 1071년경 비잔틴 제국을 몰아내고 지금의 터키 땅인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하였다. 오늘날 터키 땅을 관통하는 대상로와 아나톨리아 전역에 산재해 있는 대상숙소인 카라반사라이는 그 시대의 문화유산이다.



셀주크 튀르크가 몽골에 의해 멸망당한 후 그들은 다시 오스만 제국을 건설하여 500년간 세계를 호령하였다. '밀레트'라는 제도의 틀 속에서 다양한 관습과 종교, 소수 민족의 정체성은 보호되었고, 인류는 오랫동안 함께 사는 법을 체험하였다. 이러한 공존의 정신이야말로 세 대륙에 걸쳐 인류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던 오스만 튀르크의 진정한 힘이었다. 새로운 문물에 대한 자기 혁신에 실패한 오스만의 대제국도 결국 1차대전 때 독일과 함께 동맹국을 형성해 패전함으로써 그 운명을 다하였다. 강대국에 의해 사분오열된 오스만 제국은 독립 전쟁의 영웅인 케말파샤 장군에 의해 오늘날의 영토를 확보하고 1924년 터키 공화국으로 거듭 태어났다. 이리하여 현재 터키는 사계절과 함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78만 평방km의 비옥한 토지에 7500만 인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대단한 역사적 긍지와 찬란한 문화적 유산으로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건강한 정신생활과 풍요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다. 터키 국민의 98%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그들은 일찍이 10세기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그렇지만 터키의 이슬람은 다른 종교, 다른 모습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익숙하다. 이슬람과 세속주의가 결합한 터키는 이슬람권에서 가장 자유롭고, 터키인의 손님 접대는 이방인을 누구든 쉽게 친구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하여 누구나 터키를 다녀오기만 하면 열렬한 터키 팬이 되고 만다.

동서양이 만나는 화해와 공존의 도시 이스탄불을 가진 나라

터키는 이스탄불을 가진 나라이다. 이스탄불에는 살아 움직이는 삶이 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역사의 무게가 있다. 이스탄불 역사지구의 베야지트 광장을 중심으로 반경 1km내에 인류가 이룩한 5천년 역사의 문화유산들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 히타이트, 아시리아 같은 고대 오리엔트 문명에서부터 그리스·로마 문화, 초기 기독교 문화, 비잔틴 문화, 그리고 이슬람 문화의 진수들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또는 한 점에서 서로 만나고 있다. 옛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었던 이스탄불은 동양과 서양, 옛 것과 새 것이 절묘하게 조화된 세상에서 가장 환상적인 미항이다. 유럽과 아시아가 1km의 다리 하나로 연결되어, 유럽 쪽 도시가 이스탄불이고, 맞은편 아시아 쪽이 유명한 민요의 마을 위스크다르이다.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육상 실크로드의 끝이고 해상 실크로드의 시작이었다. 피부색이 다른 각양의 민족들, 많은 종교와 사상, 신화가 이스탄불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면서 공존과 화해라는 참문화를 일구어 냈다. 이스탄불은 서양의 품안에 요염하게 안긴 동양의 자태로 오늘도 그렇게 서 있다.





06



07

기원전 7세기 그리스의 지도자 비자스는 델피 신전의 신탁을 받고 천혜의 요새인 보스포러스 맞은편 언덕에 새 식민 도시를 건설했다. 이렇게 하여 비자스의 이름을 딴 비잔티움이란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스의 비잔티움은 서기 196년 로마제국에 함락되었다가, 330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곳을 로마의 새 수도로 정하면서 화려한 콘스탄티노플이 태어나게 된다. 그 후 1123년 간 서양 사상의 중심이자 세계최대의 도시로서 인구 100만의 콘스탄티노플은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눈부신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1453년 5월 29일, 유럽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충격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했다. 콘스탄티노플이 동방의 새로운 강자 오스만 제국에 의해 함락되었기 때문이었다. 정복자 술탄 메흐메트 2세는 그리스 정교의 심장부인 성 소피아 성당에서 이슬람식 예배를 올렸고, 오스만 군대의 오랜 전통에 따라 3일간 정복자의 특권인 약탈을 허용했다. 무질서한 혼란 속에서 서양과 동양은 서로 아프게 섞이고 만났다. 3일 후 도시는 새로운 평정을 되찾았으나, 이미 화려함의 대명사 콘스탄티노플은 아니었다. 이슬람의 도시 이스탄불로 다시 태어나면서, 동서양의 조화로움이 가득 넘치는 독특한 문화를 일구어 갔다. 그리고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만나 어떻게 조화롭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이스탄불 역사지구는 인류에게 교훈처럼 들려주고 있다.

이스탄불의 음미는 성 소피아 성당에서 시작된다. 1500년의 역사를 증언하는 성 소피아 성당은 그리스 정교의 총본산이라는 정신적 의미 뿐만 아니라, 비잔틴 건축의 압권이다. 중앙 돔에 수많은 보조 돔을 사용한 소피아 성당의 비잔틴 양식은 후일 모스크를 비롯한 이슬람 건축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오스만 제국의 이교도 치하에서 500년간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당하는 비운을 겪은 후,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어 기독교 정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남아 있다. 아라베스크의 어지러운 코란 장식 뒤로 회칠을 벗겨 낸 장엄한 기독교 성화들이 찬연한 금빛을 발하고 있다. 문화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관용의 미덕 앞에 독선으로 가득한 현대인은 비로소 숙연함을 배우게 된다.



08

- 01 성소피아 성당
- 02 모자이크로 표현한 예수의 모습, 성소피아 성당
- 03 성소피아 성당 내부
- 04 지하 저수 궁전
- 05 베르가마 아크로폴리스 극장
- 06 에페소스 헤라클라스 게이트
- 07 베르가마 아크로폴리스 신전
- 08 토프카프 궁전 바그다드 정자
- 09 보스포러스 해안 전경

성 소피아 성당의 바로 맞은 편 히포드롬에는 이슬람 건축의 대표적인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 천년의 시차를 두고 서있다. 세계 유일의 6개의 아름다운 첨탑에서 올려퍼지는 코란낭송으로 이스탄불의 소유주가 터킴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 이슬람 문화의 알맹이들은 히포드롬에 있는 이슬람 문명 박물관에 잘 전시되어 있지만, 오스만 제국의 위용을 느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토프카프 왕궁 박물관을 빼 놓을 수 없다. 특히 세계최대의 에머럴드와 84캐럿짜리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보석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귀중한 학습장이 되고 있는 복식관, 이슬람의 성물을 전시한 종교관, 주방과 화실 등이 당시 궁정의 실제 사용 장소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금남의 구역이었던 왕실 안뜰의 하렘에서는 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욕망과 사치를 훑쳐보면서 삶의 허망함을 잠시 느끼게 된다. 특히 11,000점이 소장되어 있는 도자기 컬렉션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동서해상 실크로드의 번성을 보여주는 산실이다.

로마시대의 히포드롬에는 원형 경기장의 흔적은 사라지고, 이집트의 카르나크 신전에서 실어온 오벨리스크와 텔피신전에서 있던 뱀기둥,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기념비만이 가진 자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광장을 채우고 있다. 광장을 벗어나 성 소피아 성당의 맞은 편에는 007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지하 저수 궁전이 있다. 336개의 다양한 석주가 받치고 있는 지하 저수지에는 배가 떠다닐 정도로 물이 차있다. 무엇보다 이스탄불 1천만 인구의 생명이 활기를 띠는 곳은 실크로드의 대시장인 카팔르 차르시이다. 5000여 개의 상점들이 거대한 실내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100개가 넘는 출입문에 수백개의 미로가 얽히고설켜어 웬만큼 신경을 쓰지 않으면 금방 왔던 길도 잃기 십상이다.

석양이 에게해의 수평선에 걸리는 시각, 이슬람 사원에서 은은한 코란소리가 대성당의 종소리에 섞여 유럽과 아시아로 울려 퍼진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다. 이처럼 이스탄불의 역사지구엔 유럽과 아시아, 과거와 현재, 낮과 밤이 이어져 하나가 되는 인류문화의 살아있는 희망으로 남아 있다.



한국 최초의 터키 문명전

동서 문화의 교차로에 자리한 터키는 최근 동양의 정신에 유럽의 옷을 걸친 어정쩡한 자세에서 벗어나 독특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슬람과 동양정신을 바탕으로 서구의 제도와 선진 문화를 온 몸으로 받아들여 터키만의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터키를 2020년경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의 하나로 손꼽고 있다. 무엇보다 터키인들의 심성과 문화적 바탕에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다. 두 문화민족이 지금은 아시아의 동쪽 끝과 서쪽 끝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을 일구었지만, 오랜 역사적 정통성과 문화적 원류에는 깊은 공감이 흐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순박하고 용감한 터키인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민족들보다도 더욱 한국인을 사랑하고, 한국적이며 한국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다. 아마 두 민족이 아득한 옛날 중앙아시아에서 한 핏줄로 살았다는 동류의식과, 가까이는 한국전쟁 때 많은 군대를 파병해 도와주었다는 자부심 때문이리라. 이런 점에서 오는 5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열리는 터키 문명전은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전시를 넘어 인류사의 거대한 흐름을 호흡하고 우리의 역사를 재조명 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



어떻게 쓰였을까, 고려청자매병

글 김원보 _ 회원

박물관 특설강좌에 등록하면서부터 나에게서 부담 하나가 늘 따라다녔다. 그것은 바로 리포트 제출이었다. 나름대로 내 분야에서는 적지 않은 논문도 썼고, 500페이지에 가까운 용역보고서도 몇 권 작성한 적이 있지만, 인문학 분야의 3페이지짜리 리포트는 차라리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내 나이 정도가 되면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기본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내가 궁금해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순간 머리를 스치는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고려청자매병이다. 역사교과서에서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처음으로 소개되는 것이 고려청자이고, 그 고려청자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것이 상감청자매병이었다. 교과서에서 흑백사진으로 본 秘色이라는 청자의 색깔은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았으나, 매병의 형태만은 참 특하다고 느꼈다. 과연 저런 형태의 병을 어디에 사용했을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직접 그 용도를 알아보려고 했다.

매병, 꽃병인가?

매병은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형태의 자기가 아니라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며,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려시대에 이런 형태의 병을 어떤 이름으로 불렀는지에 대해서 기록은 없으나, 梅瓶이라는 이름은 청나라 말기의 문인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청나라의 문인들이 이런 형태의 병에 매화를 꽃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매병이 꽃병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매화를 꽃았을 수는 있겠으나, 주 용도를 꽃병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꽃병으로 사용하기에는 매병의 입이 너무 좁다. 만약 매화를 꽃는다면 작은 가지 두 개 이상을 꽃을 수 없다. 그러다보니 꽃힌 꽃의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병의 어깨가 넓어 균형이 맞지 않는다. 특히 매화는 겨울 추위를 이겨내 제일 먼저 꽃을 피우고, 또한 마른 그루터기에서 뻗어 나온 가녀린 가지 끝에 핀 꽃이 일품이다. 이에 비하면 매병은 너무나 육감적이어서 매화의 고고함이나 청초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실제로 매병에 매화를 꽃아 보면 꽃과 꽃병의 부조화를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매병이 꽃병은 아니라고 본다.

매병, 술병인가?

매병은 술병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 이유로 술잔 형태의 뚜껑이 있는 매병이 있으며, 송나라의 매병 중에는 酒자가 들어간 詩가 새겨져 있는 것도 있고, 또한 매병이 술잔과 주전자와 같이 그려진 그림이 있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나는 매병이 술병도 아니라고 본다. 물론 때로는 술병으로 사용하였을 수는 있겠으나, 주 용도를 술병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매병의 형태적 특성이 술병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다. 특히 작은 뚜껑을 잔으로 사용한다면 잔이 넘치지 않게 적은 양을 따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은 매병에 물을 담아 직접 사용해보면 확실해진다. 아니면 매병에 담긴 술을 주전자에 부어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단지 술을 보관할 목적이라면 매병과 같이 넘어지기 쉬운 병에 술을 담을 이유가 없다. 또한 매병과 주전자와 술잔을 일습으로 사용하였다면 주전자와 술잔이 매병과 같이 출토되거나 같이 전해 내려와야 하는데, 내가 조사한 바로는 그러한 기록은 없다. 그리고 酒자가 들어간 시가 새겨져 있는 매병이 있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술병으로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매병에 이러한 기능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병으로 사용하였다고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나는 매병이 술병은 아니라고 본다.

매병, 부장용인가?

3세기경 중국에서 청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주로 玉璧을 대신하는 부장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고려에서도 청자를 부장하였는데 그 중에는 매병도 포함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매병의 대부분은 부장품으로 출토된다. 그러므로 매병은 부장용으로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나는 매병이 부장용도 아니라고 본다. 물론 매병을 부장하였을 수는 있겠으나 부장을 위하여 만들지는 않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단순히 부장용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정교하며 완벽하다. 또한 중국에서도 청대에 오면 무덤에서 출토되는 매병은 적고, 전해 내려오는



01

매병의 숫자가 많아진다. 나는 고려청자매병은 단순히 부장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추측한다.

매병, 그 용도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매병은 어떤 용도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일까?
나는 매병을 순수하게 완상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본다.
물론 매병 중에서 형태나 빛깔이 좋지 않아 완상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술병으로 또는 꽃병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본래의 제작 용도는 완상용이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조형적으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반면 비실용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유려한 곡면을 가진 매병에 상감기법으로 그려진 운학문이나 포류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취는 평면의 종이 위에 그려진 같은 그림을 통해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매병은 청자의 비색과 매병만이 가질 수 있는 곡면과 선, 그리고 여기에 상감기법을 더하여 생동감이 넘친다. 이 그림들이 주는 독특한 정취를 만끽하기 위하여 완상용으로 제작되지 않았을까.

아마 우리의 선조들은 이와 같은 청자매병을 평생 옆에 두고, 보고 어루만지며 사랑했으리라! 그래서 죽어서도 차마 헤어질 수 없어 무덤에서조차 같이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



01 청자상감운학문매병, 39.1cm, 고려시대, 국립중앙박물관

02 청자보자기무늬매병, 보물 제342호, 고려시대, 국립중앙박물관

02

조금씩 박물관에 눈을 떠가다.

글 이지영 _ 회원

박물관 강좌를 3년째 다니는 친구를 보면서 나도 교사 생활을 마치게 되면 그저 맥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었다. 작년 2월 퇴직하자마자, 박물관 특설강좌를 신청했다. 건물 크기에 비해 조금 비좁게 느껴지는 좌석 외에는 별다른 불편함 없이 다녔는데 벌써 달력이 몇 장 남지 않았다. 눈 깜짝할 사이 하루가 지나가는 일상의 학교생활을 근 38년 하고 나니, 어느새 耳順이란 말인가. 그래도 귀는 순해지지 않았고...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선택 앞에 여유로움을 느껴야겠다.

예술이 주는 향기를 聞香이라 하였던가. 조금씩 그 향기에 눈을 떠가는 것 같다. 3월 초부터 한국의 선사시대와 고대사를 비롯하여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인류와 문화 등을 배워나갔다. 학창 시절에는 배울 수 없었던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접하게 되니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에 매우 미안한 생각이 든다. 구석기 문화를 통해서 400cc의 인간 뇌가 160만 년 전 850cc, 약 10만 년 전에 1360cc가 되었다는 진화론적 이야기며, 뼈를 갈아 바늘을 만들어 옷을 지어 입고 그로써 추운 지역까지 삶의 터전으로 삼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사. 모든 것의 기초가 놓이고 시작된 시기이며 무리가 샤먼을 중심으로 세레모니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自我)란 유구한 역사를 갖춘 존재라는 존재론적 의미를 지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 반면 나라는 존재는 한 점 먼지, 티끌에 불과하다는 역설적인 사실도 느끼게 되었다.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 오면서 인지와 생산성이 발달하게 되었다. 또한 최초로 청동이 발견된 지역은 이란과 이집트로 B.C 3700년경 발견되어 확산되었다고 한다. 청동기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문화가 고인돌 문화인데 고창에 4,500여 개가 분포되어 있다. 전라남도 순천 주암댐 유물은 매우 드문 예로 고인돌에서 청동기 유물이 나왔다. 무덤에 부장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 넣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삶보다 죽음을 중요시 여긴 당시 사람들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다는 강사의 설명에 호모사피엔스로서의 인간적 면모를 느꼈다. 한반도에는 고인돌 7,8만 개가 분포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고 일본의 것들도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햇살 좋은 봄날 경북 고성 가야지역 답사 때, 당시의 고분들을 감상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이었다. 고분들을 등에 지고 앉아 옛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큰 즐거움이었다. 한편 고성 장터에서 맛보았던, 별스런 재료 없이 나물 몇 가지와 참기름, 깨소금, 양념장으로 내온 소박한 시골 장터의 비빔밥은 별미 중에 별미였다. 부여의 정림사지 석탑과 박물관에서 본 백제시대 향로의 정교함, 그것들을 카메라에 담던 모습들이 하나하나 잊혀지지 않을 듯하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우리의 것들이 보여주는 요란하지도, 별스럽지도 않은 자연스러움은 단아한 기품마저 느끼게 한다.

지난 7, 8월 약 보름 간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 지역이라는 코카서스 3개국을 여행하고 돌아왔다. 물론 관광에 불과한 여행이었고 아직은 국내 여행사에서 보편적으로 소개하는 지역은 아니다. 그러나 다녀온 후에 듣게 된 박물관의 중앙아시아 강좌와의 연계성을 놓고 볼 때, 중앙아시아와 서부아시아의 중요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특히 아제르 지역에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부스탄 지역의 고대 암각화는 인상적이었다. 건조한 사막인 고부스탄은 석기시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는 유적지이다. 채석장 인부에게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6천여 점의 암벽 그림과 40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B.C 8000년경에 새겨진 짐승, 보트, 인물 등을 비롯해서 A.D 1세기에 새겨진 라틴 문자와 페르시아 문자들까지 있었다. 먼 이국까지 와서 우리나라 고령에서 보았던 선사시대 암각화와 유사한 암각화들을 보면서 학창시절 수학여행을 다니며 走馬看山식으로 흘러들으며 무관심했던, 우리 것들에 대한 나의 무지를 반성하게 되었다.

박물관 첫 강좌에서 들었던 디자인의 원류는 박물관에 있으며, 전시실을 자주 이용하고, 보면 볼수록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실천하였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라. 진정으로 만족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고,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스티브 잡스의 말이 나를 때린다. 많은 강좌들과 전시실에서 만난 아름다운 작품들이 나를 향해 손짓하는 것을 보면 이제 나도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느껴지기 시작했다. 박물관에 눈을 떠가는 것 같다. 🍷



後百濟 佛教美術의 特徵과 性格

글 김정환 _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後百濟는 甄萱이 892년에 건국하여 936년에 멸망한 국가이다. 그 영역은 羅州一帶를 제외한 전라지역과 충청지역을 아우르고 있었다. 고려에 멸망되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후삼국 중 가장 강대한 군사력을 자랑하였다. 또한 '正開'라는 독자적인 연호의 사용과 함께 中國의 吳越과의 외교관계를 펼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國政 運營을 위하여 佛教界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당연히 다양한 佛教美術品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후백제 佛教美術에 대한 논의는 王宮里 五層石塔 出土品, 後三國期 地方化된 佛像, 百濟系 石塔에만 머물렀다. 이러한 논의의 대부분은 후백제 불교미술품의 土俗的 性格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고찰은 후백제의 불교미술의 성격이 土俗性에만 있는 것인지, 정말로 백제 불교미술품을 재현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하였다. 물론 후백제는 高麗와 마찬가지로 豪族聯合政權의 성격이 짙었으므로, 각각의 호족에 따라 토속적인 불교미술품을 조성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후백제 중앙의 불교미술, 즉 왕실 발원 불교미술품까지도 토속적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하여 먼저 건훤의 불교정책과 고려의 佛事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백제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왕실 발원의 불사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왕실 발원 불교미술품의 분석을 통하여 종국에는 후백제 불교미술의 성격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그러한 후백제 불교미술의 성격 형성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II. 後百濟의 佛教와 王室 發願 佛事

후백제와 불교계와의 관계와 고려의 불사 양상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후백제 왕실에서 발원한 불교미술품은 남고사 출토 금동불입상, 봉림사지 출토 불교미술품 일괄, 왕궁리 오층석탑과 금동불입상 등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금산사, 미륵사, 화엄사, 실상사 등 건훤 정권이 불교정책을 펴는데 있어 중요하게 여겼던 사찰에서도 후백제 왕실



왕궁리오층석탑
후백제 10세기초, 8.5m, 국보 제289호

발원 불사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이를 확실한 불교미술품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9세기 후반이 상한인 소형 금동불입상의 경우 후백제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것을 후에 봉안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금산사 등 기존 사찰은 기존 불교미술품을 보수하여 재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전적으로 후백제 왕실 발원 불교미술의 특징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봉림사지 불교미술품이 후백제 왕실 발원 불교미술의 성격을 잘 대변해준다고 하겠다.

Ⅲ. 後百濟 佛教美術品의 特徵

앞장에서 유추하여 본 후백제 왕실 발원 불교미술품은 석탑, 석등, 불상 등 대체로 다양한 편이다. 비록 그 수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후백제 불교미술의 성격을 일반화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장에서는 후백제 왕실 발원 불교미술품을 석탑, 석등, 불상 등으로 나누어 양식 분석 뿐만 아니라 특정 형식의 영향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1. 石塔

후백제 왕실 발원 석탑은 왕궁리 오층석탑과 봉림사지 오층석탑이 있다. 여기에 더해 화엄사 동오층석탑도 후백제 불교미술품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들 탑은 공통적으로 우선 통일신라 기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기존에 백제계 석탑의 특징으로 파악되었던 단층기단은 통일신라 석탑 가운데 경북 문경과 상주 지역 석탑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견훤의 아버지인 아자개가 근거지로 삼았던 사불성 지역의 상주 화달리 삼층석탑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5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탑신이 오층인 것을 定林寺址 五層石塔의 영향으로 보기도 하나, 羅原里 五層石塔이나 화엄사 서오층석탑 등 통일신라 석탑에서도 종종 보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백제 석탑의 영향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오히려 화엄사 서오층석탑의 영향이 강하였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세 번째로 평박한 옥개석과 낮아진 옥개받침, 뚜렷한 우동을 공통점으로 들 수 있다. 백제 석탑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오층으로 탑신의 층수가 늘고 기단이 낮아졌을 때 기존의 높은 옥개석에 비해 낮은 옥개석이 안정감 있는 비례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옥개석을 평박하게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화엄사 동오층석탑
후백제 10세기초중엽, 6.4m, 보물 제132호



봉림사지 오층석탑
후백제 10세기초, 6.4m, 보물 제276호

2. 石燈

후백제 왕실 발원 석등은 鳳林寺址 石燈이 있다. 이 석등에서 간주석과 화사석이 방형을 이루고 있는 점은 통일신라 팔각 석등에서 고려의 사각 석등으로 진행되는 과도기적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천왕상의 조각 역시 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조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淸道 雲門寺 四天王像과 비례가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900년 무렵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석등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석등에 조각된 雲龍文은 轉輪聖王을 자처했던 견훤이 왕실 발원 사찰인 봉림사의 불교미술품에 왕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운룡문을 새겼을 것으로 판단된다.

3. 佛像

후백제 불상 가운데 후백제 왕실과 연관이 있는 것은 王宮里 五層石塔 出土 金銅佛立像과 鳳林寺址 石造三尊佛이다. 왕궁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립상은 경주 出土 金銅佛立像과 동일한 양식을 보인다. 봉림사지 삼존불은 아담하면서 균형 잡힌 9세기 후반의 불상 양식을 보인다. 세부 형식에 있어서는 안동지역, 팔공산지역, 문경지역의 독특한 형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형식이 불상에 나타나게 된 이유는 그 지역이 견훤의 출생지 혹은 전투를 치른 지역의 조각 유파가 후백제로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편 광배의 화불이나 보살상에서 볼 수 있는 고식 형식은 지역 내 토착 조각 유파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봉림사지 석등
후백제 10세기, 2.5m, 보물 제234호

IV. 後百濟 佛教美術의 性格과 그 背景

후백제 불교미술은 신라지역의 불교미술과 매우 친연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북 북부일대 불교미술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화엄사 동오층석탑과 왕궁리 오층석탑에서 볼 수 있는 가구식 단층기단은 백제 석탑보다는 문경과 상주지역 석탑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봉림사지 오층석탑은 비록 통일신라 석탑의 일반적인 중층기단이기는 하지만 경북 북부지역으로의 進擊路에 위치한 김천, 예천 등지의 석탑과 유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경북지역 석탑의 영향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석등에 조각된 사천왕상은 형식과 비례에 있어 경주 인근 운문사 사천왕상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불상은 경주지역 불상과 양식적 공통성을 보이며, 조각 유파를 추정하는데 유용한 착의법 등 세부 형식은 문경지역, 안동지역, 팔공산지역의 불상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이유는 견훤의 出身과 對新羅觀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견훤은 尙州 加恩縣에서 농업으로 자활하던 阿慈介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자개는 후에 沙弗城 장군을 자칭하면서 상주일대를 지배하는 호족이었다. 이 때 견훤은 인근의 봉암사를 비롯한 상주일대의 불교미술을 경험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경험은 후백제 왕실 발원 불교미술품에 경북 북부지역의 불교미술품의 형식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918년 아자개가 고려에 歸附한 뒤로,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영토확장이라기 보다는 그 지역에 대한 緣故意識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연고의식이 출신지역 불교미술품의 특정 형식을 반영한 불교미술품을 후백제에 조성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며, 그 지역 출신 조각 집단이 후백제에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견훤의 대신리관은 견훤의 경주 入城과 自立 이후의 태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견훤은 장성하여 군대와 함께 왕경에 들어갔는데, 이 때 경주 문화를 동경하는 의식이 생겼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견훤이 경주를 침공한 뒤 왕실 창고의 보물과 기교가 뛰어난 장인을 데리고 전주로 간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백제 불교미술품에는 백제의 옛 궁성지에 세운 왕궁리 오층석탑 등 일부 백제 불교미술품의 요소가 확인되었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견훤 정권의 이중성을 드러낸 것인데, 백제의 후신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對民政策의 일환으로 백제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왕궁리 오층석탑 같은 불교미술품을 조성하였다고 한다면, 탑 안에 봉안한 금동불이나 願刹의 성격이 강한 사찰의 불교미술품에는 出身地를 懷古할 수 있는 불상과 석탑 등을 조성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시기 불교미술품 일부에 백제 불교미술의 형식을 차용한 것은 고려시대에 본격적으로 백제계 석탑과 불상을 조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금동불입상
후백제 10세기초, 17.4m,
왕궁리사지 출토, 보물 제123호, 국립전주박물관



봉림사지 석조삼존불
본존 높이 84cm, 전북대학교박물관

V. 맺음말

후백제 견훤 정권은 금산사와 미륵사를 근거로 한 미륵신앙과 결탁하였으며, 왕권 강화를 위한 화엄종, 그리고 선종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후백제에서 불교의식은 금산사나 미륵사 같은 기존 사찰을 이용하였고, 방어와 교통로의 비보를 위해서 남고사와 봉림사 같은 사찰을 창건하였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백제의 옛 궁성지에 왕궁리 오층석탑을 세우기도 하였다. 후백제 왕실 발원 불교미술품 가운데 석탑은 화엄사 동오층석탑, 봉림사지 오층

석탑, 왕궁리 오층석탑이 있는데, 대체로 통일신라 석탑을 바탕으로 일부 형식에서 백제 석탑의 요소가 보인다. 석등은 봉림사지 석등이 있는데, 형태에서는 통일신라 석등과 고려 석등의 과도기적 특징을 보이기는 하지만, 화사석에 조각된 사천왕상의 형식과 양식은 운문사 사천왕상과 유사한 것이 특징이다. 불상은 왕궁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입상, 봉림사지 삼존불이 있는데, 두 상은 모두 통일신라 9세기 후반의 불상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특히 봉림사지 삼존불은 불상 조각 유파를 추정할 수 있는 특정 형식이 안동, 문경, 팔공산지역과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후백제 불교미술의 성격은 첫째, 경북 북부지역, 특히 문경지역의 불교미술이 후백제 불교미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다. 둘째, 기념비적 조형물인 왕궁리 오층석탑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불교미술품에서 백제 형식은 일부에서 밖에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성격은 후백제 견훤 정권의 백제 계승 의식과 출신지에 대한 향수에서 오는 이중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한 성격 형성의 배경에는 견훤의 출신과 대신라관이 커다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견훤의 가문은 상주일대의 호족으로, 그 지역 내 문화 후원자 역할도 하였을 것이다. 또한 견훤은 신라 왕경에 들어가 왕경의 화려한 중앙문화를 직접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경험이 바탕이 되어 신라 문화를 동경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 정우택 _ 동국대학교 교수

이 논문은 불교미술 전반을 통하여 후백제 불교미술의 특징과 성격을 구현해 보고자 하였다. 후백제 불교미술 연구는 조각, 건축, 공예 등으로 나누어 별도로 진행되었으나 이 글은 후백제 불교미술의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이들을 별개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연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을 만하다. 또한 학술논문으로서 체재를 갖추었고, 후백제 불교미술의 전체 모습을 복원해 보려는 시도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박은경 _ 동아대학교 교수

후백제 불교미술과 관련된 문헌자료나 후백제 작품으로 절대성을 갖는 불교미술품이 전무한 상황에서 왕실발원 불교미술품을 추정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련 연구 성과를 섭렵하고 나름의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기존 후백제 미술관련 연구가 주로 백제 불교미술의 복고라는 측면에 천착한 것과 달리 통일신라 미술의 연장이라는 큰 틀에서 파악한 것은 매우 뜻깊은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012 상반기 국립박물관 전시계획

전시기간	구분	전시명	박물관
2. 4 - 4. 1	특별전	남도의 宗家 탐진 최씨 기증유물전	광주박물관
2. 28 - 4. 29		조선 왕실의 보물	진주박물관
3. 6 - 5. 6		관동팔경전	춘천박물관
3. 20 - 5. 6	특별전	타임캡슐을 열다 - 색다른 고대 탐험	중앙박물관
3. 27 - 5. 28		조선과 대한제국	대구박물관
3. 27 - 7. 1	테마전	아시아, 나무에 담긴 이야기	중앙박물관
4. 5 - 5. 27	특별전	양동리(가제)	김해박물관
4. 17 - 6. 17		중국 산시역사박물관 소장 명품전	경주박물관
4. 24 - 6. 24		외규장각 위궤	광주박물관
5. 1 - 9. 2	특별전	이스탄불의 황제들	중앙박물관
5. 8 - 6. 17		호생관 최북	전주박물관
5. 15 - 6. 24		청주 신봉동 발굴 30주년 기념전	청주박물관
6. 5 - 7. 1		한국전쟁	춘천박물관
6. 5 - 8. 5	특별전	미국 소재 한국미술전	중앙박물관
7. 10 - 9. 9		남도문화전Ⅲ-강진	광주박물관
7. 17 - 9. 9		외규장각위궤(가제)	대구박물관
7. 24 - 9. 9	테마전	중국의 길상	중앙박물관

** 위의 전시계획은 박물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종학 기증실



서안, 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기증실에서 만난 숨은 보물 한점, 서안이다.
단정해 보이는 그 앞에 서면 청렴한 선비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아! 시를 짓던 마음이 이어진걸까.
다리 끝 두루마리인양 말아 올려진 모양이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鎮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회장을 거쳐 2011년 11월 金正泰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金正泰
副 會 長 | 申聖秀 洪錫肇
理 事 | 金英那 金信韓 金斗植 南秀淨
朴殷寬 成弼鎬 申憲澈 尹碩敏
尹在倫 李健茂 李圭植 許榕秀
洪政旭
監 事 | 金義炯
事務局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원, 청룡 오십억원, 백호 삼십억원, 주작 십억원, 현무 오억원, 천마 일억원, 금관 오천만원, 은관 삼천만원, 청자 일천만원, 백자 오백만원, 수정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천마회원

하나은행 金正泰
千信一 세종옛돌박물관장
孫昌根 소장가
尹章燮 호림박물관 이사장
SK에너지 申憲澈
尹碩敏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금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팬택&큐리텔 朴炳燁
(주)한섬 鄭在鳳
(주)STX 姜德壽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鄭明勳 서울시향 고문
權俊一, 具在善 Actium 부회장
庚園 광제사 주지
鄭溶鎭 신세계 부회장
都炯泰 깔리리현대 대표
朴殷寬 (주)시몬스 회장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洪錫肇 보광웨미리마트 회장
李垞炅 휴빅 대표

은관회원

柳昌宗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金鍾漢 (주)종합전기대표
成弼鎬 광성기업대표
徐載亮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柳芳熙 (주)풍산주택회장
南秀淨 (주)썬앳푸드 대표
許榕秀 (주)GS홀딩스 전무
金寧明 (재)예을 이사

趙顯相
최철원
洪政旭
金信韓
金承謙
李明姬
姜院基
李圭植

청자회원

金芝延 (주)컨셉 대표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田永采 한길봉사회 이사장
金永斌 김&장 법률사무소
玄明官 일진홀딩스(주) 대표
許正錫 OCI 부사장
李宇鉉 스무디즈 코리아(주) 대표
金性完 수원대학교 이사장
李仁洙 변호사
金榮秀 호성형업회장
胡鍾一 성암고서박물관장
趙炳舜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慎炳宰 남양유업 전문위원
李雲卿 제일화재 이사장
金英惠 삼표산업
李美淑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鄭在昊 열화당 대표
李起雄 법무법인 세종 대표
辛永茂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辛炳讚 성곡미술관 이사
朴載蓮
李鈴子
朴海春
金宗學
한국도로공사
玄智皓
金南延
金寧慈
金正宙
梁汰會
尹在倫
丁恩美
鄭義宣
崔惠宜
洪誠杓
崔世勳
朴世昌
崔杜準
李海珍
金澤辰
李善眞
洋賢財團
薛允碩
李英純
朴正遠
李教祥
金載烈
金仁順
梁洪碩
朴禳原

효성그룹 부사장
M&M(주) 사장
(주)헤럴드미디어 회장
대성산업 전무
(주)서릉통상 전무
일우재단 이사장
오리는 대표
경신금융 대표

(주)컨셉 대표
아름지기 이사장
용인대학교 부총장
한길봉사회 이사장
김&장 법률사무소
일진홀딩스(주) 대표
OCI 부사장
스무디즈 코리아(주) 대표
수원대학교 이사장
변호사
호성형업회장
성암고서박물관장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남양유업 전문위원
제일화재 이사장
삼표산업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열화당 대표
법무법인 세종 대표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성곡미술관 이사

서양화가
柳徹浩 (주)화승 부회장
동훈다앤아이 대표
(재)예을 이사장
(주)NXC 대표이사
(주)비상교육 대표
서울대학교 교수
종로평인아카데미 대표
현대자동차 부회장
회원·자원봉사
고려상사(주) 부회장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금호타이어 부사장
(주)동남유화 대표이사
NHN(주) 이사회위원장
(주)엔씨소프트 대표
목금도갤러리 관장

대한전선 부회장
한국미술협회회원
재미교포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한국고미술자기연구소
대신증권(주) 부사장
두산산업차량(주) 부사장

朴知原
曹在顯
曹榮美
金世淵
金兌炫
Joseph Bae
具本商
朴善正
金裕錫
咸泳俊
金載勳
高基瑛
尹賢慶
韓榮宰
崔仁善
吳勝敏
許允秀
俞承熹
李宰旭
李萬圭
趙希卿
朴宣注
尹寬
林鍾勳
柳智勳
李濬宇
楊仁集
尹勝鉉
吳治勳
李學俊
李芝衡
金性南
金英姬
金京姬
韓惠舟
柳英芝
李胤基
崔再源
李甲宰
姜承模
全裁範
金斗植
成來恩
張升準
李宇成
許允烘
張仁宇
朴廷彬
具本赫
禹燦奎
徐東姪

두산중공업 사장
경기도 문화의전당 이사장
(주)KPE 전무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성신양회(주) 부사장
KKR Asia 대표
LIG 넥스원(주) 부회장
GLMI 대표
행남자기 대표이사 총괄사장
(주)오투기 회장
영풍제약 부사장
(주)금비 사장
동화약품 팀장
노루홀딩스 회장
회원
동일산업(주) 전무
(주)AITO(주)AITEK 부사장
코리아나화장박물관 부관장
(주)대주기공 사장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광주요그룹 이사
영은미술관 관장
BlueRun Ventures 대표
한미약품 사무이사
영남제분 부사장
홍아해운 상무
진로재팬 대표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대한제강 부사장
서울옥션 대표
변호사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강좌 수료생
(주)피오나조경 대표이사
화정박물관 관장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SK부회장
삼일회계법인 전무
한국석유그룹 사장
금강공업 부사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영원무역 이사
매경미디어그룹 사무이사
이테크건설 상무
근화제약 대표
신원 부회장
LS-Nikko 동제련 이사
학교재 대표
회원



